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기독교 교도소 기도 요청

1993년 제 3 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하에 운집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 후 1995년 10월에 이종윤 위임목사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에 기독교 교도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97년 1월에 이사회가 발족하여 법제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9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영 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게 되었다.

서울교회에서는 이 기간동안에 새벽마다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하여 기도하여 왔고 이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할 제안법안도 설립되어 교도소 설치를 위한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2002년 3월에 교정법안 선정 및 허가에

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 교도소 부지 배임과 건축에 소요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되어있고 현재 교도소 제안 법안이 55억원의 약정현금을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250억원의 모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종윤 위임목사는 교도소 제도가 기독교의 책임임을 역설하면서 특정 기간동안 감금을 통해 자유를 속박함으로써 고통을 부과한 현행 자유형 제도의 효시는 중세 기독교회의 발상이며, 1790년 미국의 케이커 교도들이 교도소의 최초 모델을 제시하였던 바, 현행 30여년의 교도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실험이 완전히 실패적이었음을 보여주고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기독교회의 책임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영적으로 비뚤어진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근본 변화로 현대 사회에 영향력 과 공헌도를 선양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아멘 관현악단 모집

주일 3부예배시 악기로 예배를 섬기는 아멘 관현악단의 단원을 모집한다.

중학생이상 악기 전공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예배를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습은 매주일 12시10분 605호에서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 11교구 가족모임

1월29일(화) 6시30분 만나 홀

11교구(교구장 김사무엘 장로)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가족모임이 29일(화) 6시 30분 만나 홀에서 있다. 이번 모임은 그 동안 소원하였던 교구 가족간에 친교를 도모하고 교구 발전을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 고등부 Lock-In행사 가졌다

Lock in the door Open the mind

고등부에서는 1월25일~26일 무박2일간 친교 프로그램인 Lock-in을 개최하였다. Lock-in은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년2회 갖게 되며 문을 잠그고 닫힌 공간에서 밀도 있는 친교의 장을 위해 2001년부터 마련되었다.

### 중등부 학생회 임·역원 수련회 가졌다

중등부에서는 1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임·역원 수련회를 운영국목사의 지도로 영성훈련과 학생회 부흥을 위한 토론의 모임을 가졌다.

금주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개역개정판 시 36:7-8)

How priceless is your unfailing love! Both high and low among men find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They feast on the abundance of your house; you give them drink from your river of delights. (NIV Ps 36:7-8)

### 엘리베이터 가동시간 변경

교회는 예배당 보안 관계로 엘리베이터 가동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하기로 하였다.

평일에는 오후 8시 이후에 지하층의 가동을 중지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전층 가동을 중지한다.

교회내 행사로 담당자가 사무국에 사전요청을 할시 가동할 수 있다.

### 베드로 남선교회 신년기도회

2월2일 오후1시 교회에서 출발

우리교회 45세부터 49세까지의 남자 성도들의 모임인 베드로 남선교회(회장 김규태 집사)가 광림기도원에서 신년기도회를 갖는다. 오는 2월2일(토) 오후1시에 교회에서 교회버스로 출발하여 기도원에 도착하여 밤 9시까지 계속하여 김운호 목사의 지도아래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회를 갖게 된다. 베드로 남선교회에서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연령의 남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2002년 70인 전도대 주력담당 교구및 부서

주 간	수요일(교구)	토요일(남선교회)
2월/첫 주	3교구	엘리아
둘째 주	설날연휴	설날연휴
셋째 주	4교구	모세
넷째 주	5교구	빌립
3월/첫 주	6교구	안드레
둘째 주	7교구	베드로
셋째 주	8교구	바울
넷째 주	9교구	엘리아
다섯째 주	10교구	모세

태신자 명단

이관용 박희철 김준호 오태환 류라경 이행우 이서중 고은옥 이복근 김풍철 홍현우 김미숙 강명구 (다음주에 계속)

비전2020후원자 명단

박중만 (1구좌) 김혜린 (1구좌) 옥종호 (1구좌) 김영희 (1구좌) 김시환 (3구좌) 오광환 (3구좌) 조경식 (3구좌) 이관규 (3구좌) 김대웅 (3구좌) 최용걸 (3구좌) 김영경 (3구좌) 김복녀 (2구좌) 김병숙 (3구좌) 이관모 (2구좌) 심재을 (3구좌)

이사야 강해

# 회개한 사람

(이사야 56장 1 - 8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굳게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므로 복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굳게 잡는'(2절), '굳게 잡는'(4절), '굳게 지키는'(6절)이라고 3번씩이나 '굳게'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신앙인격이 견실해야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 30년을 기다리시다가 공생애에 들어가시며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명령형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회개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 1.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1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날이 가까워오니, 또는 메시아 오실 날이 가까워오니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1절)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정의와 의는 포로에서 해방 받을 준비이며 장차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죄인 그대로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구원하십니다. 마음과 행실을 의로운 길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 2.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복

#### (1)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규례)을 지키는 자가 된다

구약에는 성전을 지어서 바치라고 하는 성전규례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고 없기 때문에 성전 규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되므로 본문에는 안식일 규례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종교의식만 행하는 날이 아니고 영적 요소도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2절),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4절).

선지자가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강조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주신 이유는,

- ①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케 하기 위함입니다(출 20:8-11).
- ②하나님이 제 7일에 쉬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③육신의 일은 뒤로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④사람에게 유익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극장이나 식당에 출입하지 않는다거나 육신적 노동을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서 참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합니다.

2절의 '더럽히지 아니하며'는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는 이 명령을 의식적이기 보다 마음의 중심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므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게 되고 우상 섬기는 일을 피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굳게 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굳게 서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므로 복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굳게 잡는'(2절), '굳게 잡는'(4절), '굳게 지키는'(6절)이라고 3번씩이나 '굳게'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신앙인격이 견실해야 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 (2) 이방인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된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6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때 그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으며 성한 사람과 불구자의 차별이 없이 누구나 진실히 믿고 회개하여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그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1).

이것은 차별대우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행 10:34-35).

#### (3) 믿음을 가지고 복된 자가 된다

'안식일을 지키며'(4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4절),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6절)는 그리스도 신앙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절의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안식일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에게 자손의 계대보다 나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 (4)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6-7절).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이방인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적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만민'은 모든 민족을 말하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인종차별이 없음을 의미하며 '집'이란 성전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던 성전과 기도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이방인에게는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 ①도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7절).
- ②열납,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7절).
- ③위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7절).

#### (5) 하나님 교회에 인도되는 복된 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8절).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결코 흔한 말이 아닙니다. '쫓겨난 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를 말하고 '모은 백성'은 그들을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회개한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돌이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現場報告 - 노인집방 스케치

나의 소망을 주께 갖기까지

2002년새해를 시작하며 담임목사 이종운 목사께서 각 교구별로 장기간 투병중인 환자들(이들의 대부분은 노인 성도들이기도 하다)을 직접 심방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음으로 믿음마저 낙담해 질 수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증거하고 계신다.

자칫 소홀해 지기 쉬운 장기환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기도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노인집방의 현장을 동행취재하였다. (편집자주)



†10교구 이순일 성도가정

이순일 성도는 올해 83세로 지난 95년 복음을 받으시고 97년에 세례를 받으셨으나 심장협심증 수술과 당뇨병 병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난여름 내내 거동을 못하시다 현재는 간신히 근거리 이동을 하고 계시고, 슬하에 1남 3녀가 있으나 현재 2녀와 지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내에 전도할 사명이 많은 가정이었다.

교구장이신 윤환오 장로와 한명순 집사 등 교구가족이 함께 한 가운데 목사님은 찬송가 221장 "나 가난복지 귀한 성애"를 2절을 한번 더 부르시고 시편 23편을 교독 하셨다. 말씀을 통해 이순일 성도와 가족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죽음의 길)를 다닐 지라도 두려워 않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dahin하였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의 날이 가나이다(시편90:9~10)

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죽었던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을 전하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라고 기원하셨다. 끝맺는 기도에서 건강을 회복시켜 새에베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셨다.

다과를 함께 나누며 이순일 성도는 몸은 비록 편찮아도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에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손녀들이 주일이면 교회 기차로 조르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꼭 오셔서 쉴테니를 타시고 라도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다시한번 권유하셨다.

심방을 마치고 떠나가는 일행을 못내 아쉬워하며 이순일 성도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3층에서 부축을 받아 내려와 떠나시는 목사님과 일행을 배웅하셨다.

†11교구 이임희 집사, 백영희 권사님

백영희 권사님과 부근되시는 이임희 집사님은 현재 81세로 신장투석을 이틀에 한 번 꼴로 12시간씩 받으시는 고통 속에서 심방을 오신 목사님을 받은 미소로 맞이 주셨다.

시간이 되어 박철훈 장로님과 김사무엘 장로님 등 교구 가족이 모여 심방예배를 시작하셨다.

먼저 찬송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2,3절을 반복하여 함께 부르며 은혜를 간구하였고 열왕기상 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신 후 우리는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살날이 더 짧을 수도 있기에 죽음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며 "기독교인의 죽음의 준비"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셨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죽음을 영감으로 알고 슬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먼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주를 잘 믿고, 순종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처럼 이집사님도 말씀 가운데서 잘 장성한 자녀들에게 다윗 왕과 같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라고 권면하셨다.

마무리 기도를 통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여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도록 하여주시고 회개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생명의 영광을 하여 주시는 의미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데 있음을 알고 자손과 이웃에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자손들은 이 복음을 믿고 축복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 하셨다.

편집부(유테서)



교역자 가족을 찾아서 ①

이성득 목사 가족편

새 힘과 새용기를 얻으며

서울교회에 부임한 지 햇수로는 6년, 만으로 5년 4개월을 맞고 있는 이성득 목사님은 최순옥 사모님과 슬하에는 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대훈(8), 1학년이 되는 예진(7)을 두고 있다. 나란히 1부 가족예배를 드리는 이 목사님 가정을 보신 성도들이라면 목사님을 배어 닮은 대훈, 예진이 의 모습에 절로 미소를 머금게 될 것이다.

세 에베당에 입당하면서 성탄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린 것을 서울교회에서의 가장 인상깊은 가족행사로 꼽으시는 이 목사님은 예배에의 감격과 기쁨이 온전히 감사가 되는 귀한 경험이었다고 회고하셨다.

서울교회 부임 후 목사님 가족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 목사님은 우선 아이들이 크게 자란 것과 평범한 일상에 덧붙인 가족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셨다. 쉴 틈 없이 섬기고 뛰는 듯 목회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집사람(1)과 자녀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을 비워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이 항상 미안하다는 목사님. 결혼 9년째 접어드는 사모님과는 친척 어른



▲좌로부터 최순옥 사모, 예진이, 대훈이, 이성득 목사님

의 소개로 만나 2년 넘게 교제를 하다 결혼하셨다는 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더 반했었다고!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인 여동생을 두셨던 장모님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세 명의 사위 중에 가장 사랑 받는 사위가 되었다고 한다.

인터뷰 내내 목회자 가정도 평범함을 강조하신 목사님께 잔혹 사모님과의 의견충돌도 있으신지 질문했다. 항상 양보하는 것은 목사님 쪽인데,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자양방임형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갈등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하지만 첫아이를 유산한 후 얻은 대훈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묵묵히 목회 일을 뒷바라지하는 사모님과 아이들로부터 목사님은 늘 새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4대째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는 이 목사님 가정이 가운뎃집 불드

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으로, 평소 가정예배 때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23장) 찬송과 더불어 늘 감송하시는 말씀이라고. 대훈, 예진이와는 복음성가 "할렐루야"를 즐겨 부르시는데, 아이들과 찬송 부르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

2002년도에 이성득 목사님은 예배위원회와 사랑부, 1·2교구를, 사모님은 30대부 성경공부반과 영어성경공부반, 대훈이와 예진은 유년부 찬양대를 섬길 예정이다. 목사님 가정의 기도제목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늘어난 교구 사역과 목회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정이 되는 것을 소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고, 흔쾌한 마지막 때에 서울교회를 세우주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며 섬기게 해 주시길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덧붙여 당부하시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정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서울교회에 있도록 힘쓰자는 말씀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편집부(나소정)



### 〈평신도 신앙강좌반〉

우리교회에 평신도 신앙강좌반(종말론, 한국교회사)이 개설될 지 3주되었다.

성경대학을 통한 성경공부는 여러 차례 있어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오셨지만 신학자가 강의하는 신앙강좌반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교계의 석학이신 두 분의 강의에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신앙강좌반은 한 학기를 16주로 하여 1년에 3학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많은 성도들이 수강하고 있다.

#### 〈종말론〉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숭실대 대학원장으로 있는 철학, 신학박사인 김영한 목사가 강의하는 종말론은 신약학자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헨드릭스의 '내세론'을 교재로 사용하며 소망으로 가득 찬 내세에 대하여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개인의 종말론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강의를 맡은 김영한 목사는 개인종말론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개인 구원에 직결되는 만

능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리이며 종말론은 단순한 교리를 배우는 차원을 넘어 올바른 신학적 기초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움으로 크게 영적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매주일 오후 1-2시, 웨스트민스터 홀)



#### 〈한국교회사〉

한국교회를 강의하는 이만열 전도사는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 동 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를 개설하여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한국교회

사의 권위자이다.

강의를 맡은 이만열 전도사는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배우므로 한국교회와 선배들의 신앙 전통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을 우리 신앙 생활의 풍부한 자양분으로 흡수하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삶과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교재는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발행한 '한국기독교의 역사'이며 1층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매주일 오후 1-2시, 601호). 한국교회사는 이만열 전도사의 러시아행으로 오늘은 휴강한다.

편집부(허숙)



### 사랑의손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항상 수고하시는 차량봉사부 여러분께

누군가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날마다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리이겠지요? 그것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요...

짧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란 향기를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다는 것... 365일 변함없는 모습과 반가운 미소로 서울교회의 주축이 되어주시는 차량봉사부 여러분께 감사하던 말조차 꺼내기가 부끄러움은 크고 눈부신 봉사가 아니기에 더욱 고개가 숙여집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더욱 애뜻하게 타오르는 향기에 마침내는 주님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며 나름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니다.

많은 차량봉사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집을 지으며 서울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사랑만이 기도가 되어지며, 사랑만이 영원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차량봉사부원 여러분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억지를 부리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남을... 이렇듯 추운 겨울이 올 때면 제 스스로가 더욱 작아져 참된 배려와 정성이란 단어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제 맛이 드는 김치처럼 참고 기다리는 법을 손수 일깨워주시는 차량봉사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민마리아 올림.

수년 동안 편지와 함께 목장갑, 마스크를 차량봉사부에 선물을 드렸기에 차량봉사부에서 답장을 보내왔다.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2년도 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하여
2.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답 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함, 서운함,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많았을 텐데 저희 차량봉사부원들의 작은 봉사를 아름답게 보여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가끔은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후원이 있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베풀어주시는 이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늘 안전 운전하시고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2년 1월  
차량부원 일동 드림.

### 학원선교의 부흥을 위하여

#### 최영열 집사(2교구)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학원선교란 학원 속에서 청소년의 복음화 운동을 말합니다. 학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청소년의 금연 · 금주 · 성(性) 문제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육이 275회라고 합니다. 그 중 대중 상대가 71회, 적은 무리 혹은 열두 제자 상대가 124회, 두 명 상대가 17회, 개인 상대가 63회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델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소그룹을 통한 교육방법이 가장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유치원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

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깨우쳐 주며, 중 · 고등학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하심을 알게 하여 기도하게 하며, 대학청년의 현장에선 믿음의 실천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학원 복음화에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前) 현직 교직자는 물론, 사설학원 및 교육기관 종사자 모두 참여하여 학원 선교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각 교육 현장에서 예수님의 교수 방법을 따라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여 인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8일(월) 연세대 연한신학대학원과 신과대학이 주최하는 목회전문화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
- 29(화) 서울여대 이사회, 31일(목) 강남노회 개척교회 지인 전례세미나를 갖는다.
- 김상철장로(3교구)는 미연방 국제 종교자유위원회가 주최하는 북한의 실상과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증언차 지난22일(화) 출국 26일(토) 귀국했다.

#### ☞ 금주의 식사제공: 김병숙권사기성

(고 강혜신집사 장례를 마치고),  
권장철권성옥 성도  
(고 최윤정 집사5주기를 맞으며)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외약도 :

